

2016-12-15 전국교양교육협의회

대학교육혁신의 지렛대, 자유학예교육

손 동 현(대전대 혜화LAC 석좌교수)

- 교육환경의 변화(1)
 - : 기술-욕구-사회상의 변화
 - 산업구조의 변화 - 직업세계의 변화
- 교육환경의 변화(2)
 - : 국내 학령인구의 급감
 -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이중성

문명사적 전환의 진앙: 디지털 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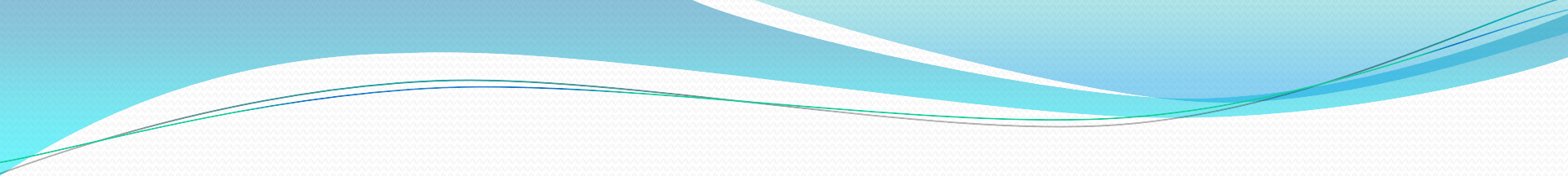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- 지능의 강화인 “정보기술”(IT)
- 감각의 확장인 “컴뮤니케이션기술”(CT)
- “정보통신기술”(ICT)로 융합
- 사유와 지각의 융합 및 호환(互換)
- 비생명적 물리적 공간 속에서 실현

“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” (Ubiquitous Communication)

- 사이버 공간(Cyber Space)을 토대로 하는 가상현실(Virtual Realty)
- 자연세계의 시공적 제약을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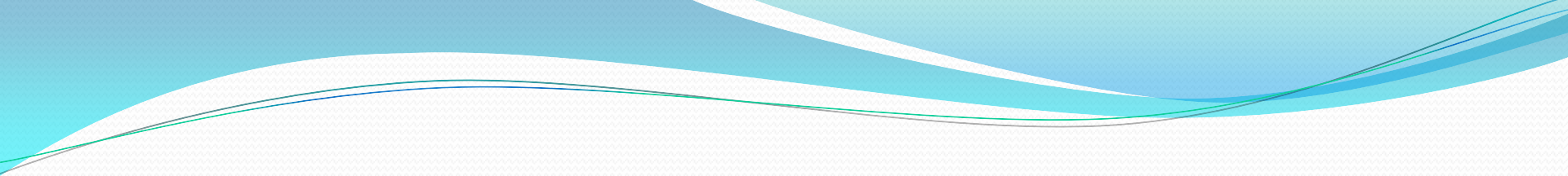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시간과 공간 - 세계경험의 근본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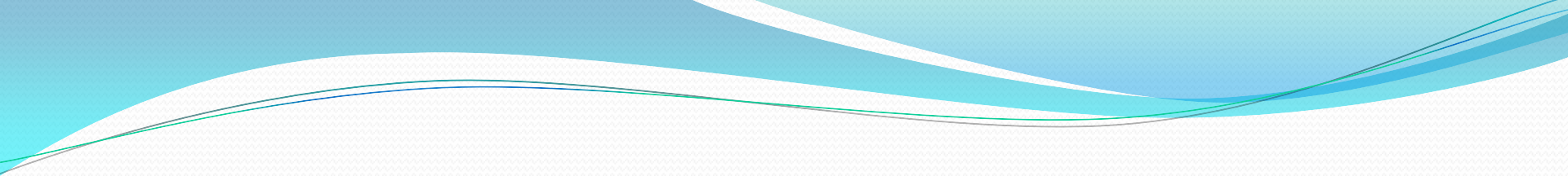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- 시간적 세계경험의 근본 원리- 순차성(順次性)
- 공간적 세계경험의 근본 원리- 독점적 배타성(排他性)

- 
- 인과적 사유- 시간의 순차성에 대응하는 생존의 한 방식
 - 논리적 사유- 물리적 세계의 공간적 배타성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결과

“가상현실”

- 시간경험에서 순차성 대신 동시성 및 즉시성
- 공간경험에서 매개성(간접성) 대신 무매개성(직접성)이 구현되는 곳

- 
- 인간의 욕구 – 동시성과 직접성을 추구
 - 욕구충족의 방식 :
단계적, 순차적 → 즉시적 무매개적 총체적 동시적

- 
- 새로운 욕구 충족의 기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
 - 복수의 “기술들”이 통합 – 새로운 융합기술이 등장
 - 융복합의 고리는 디지털 기술

기술의 융복합 → 산업의 융복합

-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의 융복합;
- 보험산업,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융복합;
- 전력, 가스, 석유, 석탄산업등 에너지 산업의 융복합;
- 자동차, 철도, 항공, 선박 등 수송 및 운수 산업의 융복합
- "산업종합적"인 기업의 출현

시공체험 양식의 변화

→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의 변화

- 인간의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변화
- 공동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의 변화
- ⇒ “공동체적 삶의 유목화”
- 세계화: 가장 넓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목화 현상

- 개인 간의 직접적인 인격적 인간적 사적 관계, 축소-약화-피상화
- 개인의 고립화, 공동체적 유대 약화, 와해
- 사회 구성원의 개체화가 강화
- 익명적 “사이버 커뮤니티”의 형성

- 공동체 삶: 계층의 다원화, 분산화, 사회조직의 탈위계화, 네트워크화
- 사회조직: 강고한 고정적 피라미드형 체계
→ 유연한 유동적 네트워크
- 탈중심화
- 탈영토화

새로운 지적 지형(地形)

- 1) 지식이 매우 용이하게 산출, 복제, 유통, 소비된다.
- 2) 정보의 양, 천문학적으로 급증; 정보의 유통,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어짐
- 3) 기원이 소실된, 탈맥락적 정보들이 범람
'con-text'대신 'hyper-text'에 만족

4) 정보의 효용기간, 급속히 단축

5) 감각적 지각작용, 논리적 사유활동보다 우세
문해적(literate) 의사소통 → 문맹적(illiterate)
의사소통

6) 지속성, 안정성, 총괄성을 띠는 융복합적
지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

교육내용의 변화

: 지식교육에서 능력교육으로

- 기초적 사고능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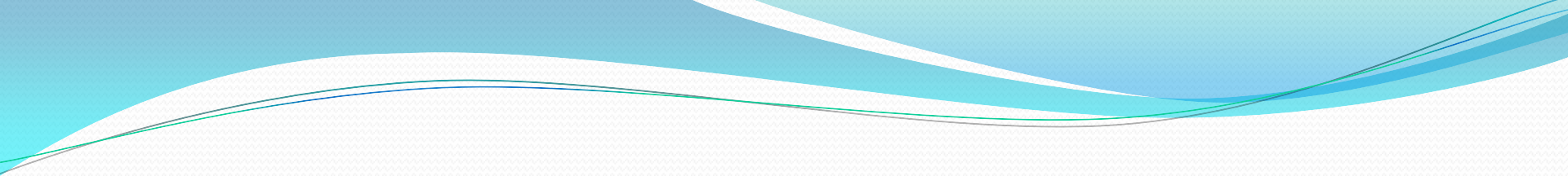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: 비판적 사고능력, 새로운 사고의 능력, 사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, 자신의 사유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

- 종합적 사고 능력, 통찰력

: “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” 능력

“특화된 전문 직업교육” 〈 “일반적 보편 지성교육”

- 지식도, 기술도 융합, 종합화의 길로
- 산업도 분화, 전문화보다는 융합, 종합화의 길로
- 각 전문 분야들의 지식도 하나의 문제 앞에서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면,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해

- 
- 오늘의 문제들이 서로 결합되어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기 때문
 - 문화사회적 삶의 영역들이 서로 융합되어 통합되기 때문

-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총체적 맥락 속에서 한꺼번에 다가온다면, 문제해결의 방식도 총합적일 수밖에
- 각 전문분야들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“지적 연결지평”이 요구됨
- 교양교육은 이에 기여하는 것, 본래 융복합교육의 성격을 갖는 교육
- **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관계: 보완적**

융합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

- 교양교육의 내용 정비
- 인문학, 기초사회과학, 기초자연과학 등 기초 학문분야의 연구성과로 구성해야
- 특정 영역의 직업교육과 직결되는 응용학문 분야의 내용은 배제되어야

- 그 이유:

1. 세계관, 인간관, 가치관의 확립에 기여
2.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가능케
3. 탐구 영역의 광범성, 탐구 내용의 보편성 및
근원성 적용범위 무제한

교양교육에 대한 피상적 편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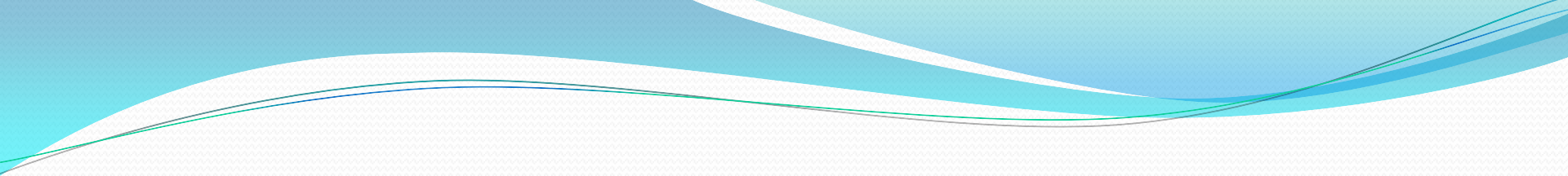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- ① 교양과목의 설강에는 뚜렷한 원칙을 세우기란 어렵다.
- ② 교양교육은 학문적 엄정성이 떨어져도 무방하다.
- ③ '비학술적인 것'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.
- ④ 교양 학업은 '여분의 교육'이다.

개선되어야 할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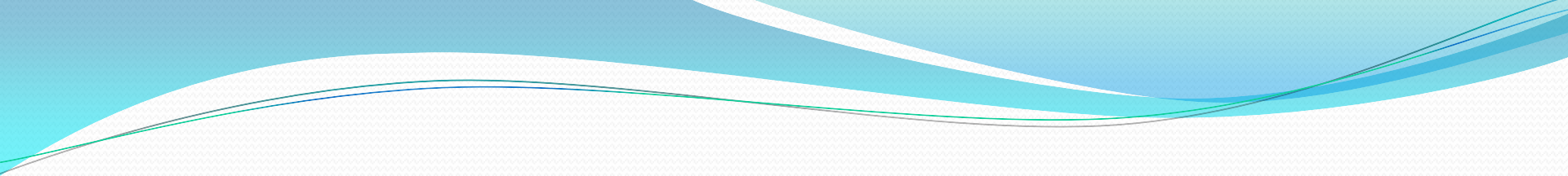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1. 원칙 : 인문학, 기초사회과학,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로 구성해야
2. 학술성 강화
3. 모든 학생이 기초학문분야에서 균형있게 일정한 양의 과목을 이수하도록
4. 정서적 도덕적 심성을 성숙시키는 '체험교육'은 비정규 교육과정에서
5. 전 학년에서 전공교육과 나란히

새로운 교육기능-새로운 교육구조, 자유학예대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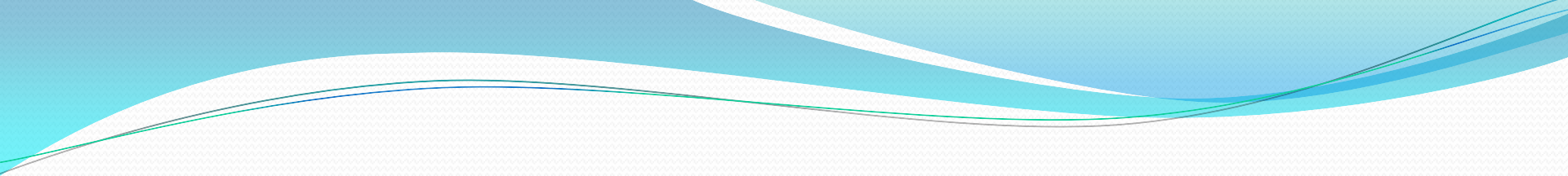
- 1) 대학교 안에 인문학-기초사회과학-기초자연과학을 망라하는 학문분야 학과들로 구성된 **‘자유학예대학’(Liberal Arts College)**을 설치한다. 학생 수가 적은 소형의 대학인 경우, 이 대학만 설치할 수도 있다.



2) 이 대학에서는 직업교육이 아닌 기초학문
교육을 실시하되,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.
물론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
야 한다.



3) 이 대학 안에서는 교양교육을 위해서도 학문
탐구를 위해서도 적절한 교과목 개발에 힘쓴다.



4) 이 대학 내의 학과들은 그 학과에 반드시
'전공학생'을 '전속'시키려 하지 않는다.
전공학생이 없어도 학과를 유지하고 교수진
도 보강한다.